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비전2020운동본부 발족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복음화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지향하는 서울교회 비전 2020운동본부가 15일(토) 발족했다.

이 운동 본부는 기존의 군복음화 후원회 비전2020 운동본부(위원장 이종윤, 본부장 이필섭)와 유기적 관계를 갖고 군전도와 세례 집례, 기도와 재정지원, 군복무 신자들과 교회와의 연결 등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조직은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당회 산하 기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본부장을 중심으로 서기, 회계를 두고 기획부, 전도부, 후원부, 교육부, 홍보부 등 5개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운동본부는 우선 군 세례식 집례와 후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임원회에서 수립하여 당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예산은 목적된 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한편 매년 실시하던 비전 2000운동은 2020 운동본부에서 흡수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해 갈 계획이다.

▶비전 2020운동 개요

· 기독교 21세기 운동: 진중세례운동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지향한다.

· 신앙의 전격화를 이루는 군복음화 운동: 건전한 믿음으로 장병들의 신앙생활 정립과 심자가 군병으로서의 사명 의식을 배양하여 국토방위의 첨병으로서의 소임을 완수케 하고 제대 후에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모범 시민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한다.

·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룩하는 애국애족 운동: 1996년을 기준으로 전국민(4천500만명)의 25%인 기독교 신자(1천200만명)를 2020년에는 전국민(5천만명)의 75%인 3천7백만명의 성도를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조직

위원장: 홍정호

본부장: 이만생

서기: 김광옥 부서기: 김규태

회계: 김성준 부회계: 송인권

기획부: 김세재(부장), 안인호 · 황정임(차장)

전도부: 탁경준(부장), 이태원 · 이용자(차장)

후원부: 제2권사회장(부장) 황선호 · 남태순(차장)

교육부: 박성현(부장) 황재목 · 주경자(차장)

홍보부: 정동호(부장) 이남성 · 한정아(차장)

올 여름행사 모두 끝나

지난 15일(토) 장로수련회를 끝으로 교회 각 부서에서는 한 달에 걸친 올여름행사를 모두 마감했다.

금년도 여름행사는 가장 먼저 7월 9일 대학부수련회를 필두로 시작되었다. 이어 7월 17일에는 유치부와 사랑부가 7월 20일부터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각각 교회당 내에서 1-3일 간 모두 여름학교 프로그램 진행했다. 또 중등부와 고등부는 미금전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갖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주에는 청년부수련회가 속초에서 개최됐다.

유아부와 새가족부는 교사수련회를 개최했고 소망부도 경기도 대성리에서 일일수련회를 가졌다.

14일부터 1박 2일 간 충북 영동에서 개최된 장로수련회에서 장로와 피택장로들은 로마서 12장 1-2절의 주제성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힘



▲서천 청운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편 농촌전도단원들

쓸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농촌전도단은 서천의 청운교회를 찾아 여름성경학교와 축초전도를 비롯,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긴 여름 각종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참가자들은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고 충만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젠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

순례자 컬럼

해방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특으로 출애굽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출애굽의 해방은 그들의 육체적 자유의 기획은 되었으나 영적 각성을 통한 새로운 의식의 해방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의 세월이 유보되어야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와 진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교만이 물고 온 독선과 거짓으로부터의 해방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고자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교훈인 것이다.

우리 민족이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찾은 지 50년이 되는 지금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해방은 되었다 해도 아직도 광야생활에서 헤매고 있지 않은가. 청산해야 할 불신과 불의와 불충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참된 해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 강해

무너지는 이스라엘 III

이사야 9장 18 - 21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악을 행한 죄

악행은 다른 말로 경건치 아니함이라고 할 수 있고, 경건치 아니함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악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제 길로 가고 있으니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이방의 빛을 삼키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혼자만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가야 할 방향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18절의 뱀뱀한 수풀은 국가나 단체를, 절레와 가시는 개인 혹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불타고 나라와 민족이 한꺼번에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장로교에서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의한다는 것은 그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므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의심입니다. 경건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어떻게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2. 연기처럼 완전히 망한다

불이 난 후에 연기가 나면 그 연기가 하늘을 덮어서 캄캄하게 만듭니다. 캄캄하다는 것은 방향 감각을 상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면 아무리 불이 나도 남아있는 수풀이 조금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아 있는 수풀로 인하여 연기를 계속 내서서 위로 올려보내십니다.

“백성은 불에 타는 쉼나무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은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쉼은 톱밥을 말하고, 톱밥은 당시에 사용되던 연료였습니다. 영어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 속에 기름을 부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죄지는 사람이 불의 쉼과 같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모두

자가 많다고 하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형제끼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날 때에는 오른손으로 움켜질지라도 여전히 주리며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꾸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온갖

“내서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절레와 형국을 삼키며 뱀뱀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쉼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주리고 좌편으로 먹음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으며 그날에는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는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렇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사 9:18 - 21)



이종운 목사

불태워 버리는데 죄지는 사람이 불 속의 쉼과 같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됨을 나타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가 단 번에 끝나면 좋겠는데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3. 형제끼리 싸울 것이다

형제끼리 다투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인간의 생활 방법도 아니고 단지 사람을 파멸시키는 일이 될 뿐입니다. 형제와 싸운다는 것은 곧 자기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물어뜯는 것은 본성적 작용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서로 싸우는 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연기가 자욱하면 소경과 같이 앞을 볼 수 없으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적인 소경이 되면 탈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뺨뺨 돌다가 결국은 서로 물고 찢으며 잡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적 죄와 국가적 죄가 많아지면 서로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잠 28:2). 그래서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주관

힘을 기울여도 배부르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으로 빼앗아도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가 법에 의해 인정을 받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철거되고, 서로 빼앗고 탈취물을 먹으려고 하는 악으로 꼭차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각각의 지파로 허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고 심판하시므로 그들간에 서로 죽이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로보암 2세 때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와 진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연기되고 있는 이유는 작은 심판의 매를 통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작은 자존심, 더러운 습관, 부지불식간에 짓는 사소한 죄들로부터 돌이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농촌봉사단을 다녀와서

해가 떠도 비가 와도 감사편

홍성주(집사, 농촌전도단 전도팀)

여기저기서 수해 소식이 들려왔다. 한켠에 무거운 마음을 두고 45명의 농촌전도대는 11일 새벽 6시 6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서천으로 향했다.

서천 청운교회에 도착한 우리는 예상외로 청명한 날씨에 어리둥절해 하며 전도 활동과 성경학교 활동을 시작했다. 전도팀은 미리 제작해 간 부채와 전도용지를 들고 가가호호 축호전도로, 노방전도로 주변을 돌았고 교육팀은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열었다. 감사하게도 예상외로 많은 인원이 성경학교로 몰려들었다.

둘째날이 되자 하늘이 갑자기 흐리더니 폭우가 쏟아졌다. 전도팀이 발이 묶여 걱정하고 있던 중, 물은 더 차오르기 시작하여 차량을 삼키고 교회출입문까지 넘쳐 올랐다. 청년들과 전도대원들은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방호

벽을 쌓는 등 수해 방지에 나섰다.

또 교회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침수피해를 줄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해 복구에도 적극 나섰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으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늘 일을 하시고 계심을 깨닫고 모두 감사드렸다. 이 일로 이웃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 예수초청 큰 잔치에는 많은 이웃 주민들이 몰려와 음식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이어 이어진 전도집회는 감격과 눈물과 은혜의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닐게요!" 설교말씀을 듣고 감격한 어느 분의 말이다.

청운교회 담임 강성동목사님은 "청운교회

가 항상 이만큼 가득차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길 기도합니다"며 감격해 했고 사모님은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한편 미용과 침술 봉사팀은 2층에서 활동했다. 문자 그대로 입주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왔다. 미용팀에선 손이 모자라 현지 미용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도움을 받기도 했다.

취사팀은 매 끼니마다 정말 맛있는 만찬을 제공해 주었다. 비를 맞으며 좁은 부엌에서 일하는 수고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역봉사분과는 도로를 정비하고 마을 청소를 하며 교회 건물을 보수하느라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매 예배시간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 찬양팀은 천사의 모습 그대로였다.

김정현 목사님, 김영준 전도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도 목소리 높여 합창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45명의 전도단은 3박 4일 간의 일정으로 충남 서천에 위치한 청운교회에 파송되었다.

파송식에서 전도·교육·의료봉사·미용봉사·식사봉사팀 등으로 구성된 전도단원들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첫날은 하나님께서 순조로운 일정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진행되는 가운데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했던 탓인지 둘째날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리셨고 인간의 힘만으론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돕

진정한 베품은 낮아짐에서

최요섭(청년부, 농촌봉사단 의료팀)

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엔 동네잔치를 마린, 온 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더불어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

나는 의료팀에서 봉사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베풀고자 했었던 처음의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기 원하면 나 자신이 한없이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한편 그들의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 건강의 소중함과 함께 영이 없는 육체의 건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도 이번 봉사를 통해 체험하게 되었다.

3박 4일의 일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 주셨다. 활동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실과 열심으로 봉사하신 서윤교회 동역자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천둥·번개·폭우 속 열매

소은희(대학부, 농촌전도단 교육팀)

대학부는 21명의 교육팀을 구성, 서천 청운교회의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많은 열매맺기를 소망하며 서천으로 향했다. 사전에 현지 성경학교가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등 모두 30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

첫째 날, 어린이들과 함께 주변지역을 전도하여 60명에 다다른 어린이들을 성경학교로 데려왔다. 준비한 성경학교 티셔츠가 모자라 더 주문해야 했지만 성경학교 시간은 즐겁기만 했다.

둘째 날, 아침부터 하늘이 어둡더니만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찌나... 그러나 하나 둘씩 몰려드는 아이들이 이내 교회당을 가득 메웠고 성경학교는 다름없이 진행됐다. 한데, 천둥과 번개가 무섭게 치더니 전기가 나가 버렸다. 이어 교회 주변은 물바다로 변했고 더 이상 성경학교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퍼져갔다. 이게 우리에게 닥친 시험인가... 그러나 곧 대학부 청년들이 나서 교회 밖에서 복구작업을 시작했고 예배당 바닥 안으로 스며드는 물은 자매들이 쓸어냈다. 비 때문에 자

칫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었던 성경학교 일정은 이렇게 주님의 인도로 순조롭게 다시 진행할 수 있었다.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 날씨는 가라앉아 있었다. 가나안 캠프와 운동회를 통해 사랑과 화개, 감사와 단합 등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어느 성경학교때 보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어린이들과 시간이 가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어린 영혼을 보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가슴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다.

모든 것을 살피시고 준비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낮은 곳에도 진리를

김현자(권사, 소망부 교사)

근자에 들어 나는 수용자와 무기수들을 찾아 그들에게 내가 아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다. 주님께서 어떤 곳에서 나셨으며 어떤 자들과 이웃하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이 일은 그리 새삼스러울 것도 못되리라.

인간 세상에도 법이 있고 도덕이 있으되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율이 그들을 어찌 심판하실지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알려주어 주님 앞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를 비롯하여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교우들의 생각이다.

사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일반인들과 구별되어 있는 그들을 볼 때 정작 참회할 자가 누구인지 모호한 생각이 들곤 한다. 과연 주님 앞에서 죄 짓지 않았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나 역시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기에 그저 눈물흘리며 자복한 것 외에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

특별히 중형을 받은 무기수들을 보면 이런 느낌은 더 강하게 부딪혀 온다. 고달픈 삶의 명예를 어찌 떨쳐 버렸는지 차라리 초연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은 영락없이 '돌아온 탕자' 요 주님 앞에 처음 무릎 꿇던 우리의 모습과 같다. 노년기에 이른 내가 주님이 아니면 어디서 이만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겠는가. 생각해 보면 영광스럽기만 하다. 나는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그곳에서 본다. 또한 지나온 삶의 어둡고 음습했던 부분들을 주님께서 어찌 굽어 살펴 주셨는가를 제삼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인생의 파란의 구비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손길이 어찌 감싸 오셨는가를 돌이켜 보면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 온다. 그 감격에 주님 명하신 사명을 조금이나마 행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자주 주님께 조르곤 한다. "주여,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의 권능으로 제 입술을 열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무력한 인간인 제가 무슨 힘으로 당신을 증거하겠습니까? 믿는 바는 오직 주님이신즉 힘 주시지 않으면 자칫 잘못 증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철 모르는 아이처럼 나의 아니 전 인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면 내 남은 여생에 대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오직 감사만 넘칠 뿐이다.

8월 학습·세례식

19일(수) I·II부 예배 시

8월 학습·세례식이 19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학습·세례를 받는 성도를 위한 교육은 교육은 16일(주일) II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와 17일(월) 오후 7시 301호실에서 각각 실시한다. 교육은 2회 중 1회만 참석하면 된다. 문답은 18일(화) 오후 7시 403호에서 실시한다.

학습·세례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가해야만 문답과 학습·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다. 문답은 새가족부로 하면 된다.

"순례자와 테이프를 발송해 드립니다"

우리교회 부설 필그림출판사에서는 매주 발간되는 순례자와 주일 설교 테이프 발송을 대행한다.

지방·군부대·해외에 있는 친지들에게 순례자나 설교테이프를 보내기 원하는 성도가 테이프 값과 송료를 부담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이를 발송하게 된다. 국내 및 해외의 지역별 신청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신청은 연간 송료 혹은 송료와 테이프 값과 함께 신청인, 받을 사람 이름과 주소 등을 적어내면 된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1년, 단위:원)

구분	지역	국내	해외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	북미 유럽 서남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아프리카
순례자		12,000원	26,000원	28,000원	33,000원	35,000원
순례자+테이프		65,000원	115,000원	120,000원	145,000원	160,000원

◇ 오늘 점심식사는 최형렬·김찬진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서울성경대학 제 4학기 교과과정표(9 - 12월)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개강일
서울 성경 대학	룻기	월요일 오전 11시	이성득 목사	9월 7일
	마태복음	월요일 오후 8시	김정현 목사	9월 7일
	요한서신	화요일 오전 6시	민영수 목사	9월 8일
	요나	화요일 오후 8시	이순환 목사	9월 8일
	욥기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9월 10일
음악 교실	음악이론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안진희 선생	9월 10일
	발성과 가창훈련	목요일 오후 8시 15분	배영준 집사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비전2020운동을 위해
2. 막을 내린 여름행사들이 결실할 수 있도록
3. 제 14학기 목회자세미나와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